

## 시적이고 우아한 접근

리스본의 유서 깊은 지역으로 알려진 상 벤투(São Bento) 거리에 자리한 아파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습이었다. 특히 리스본의 고대 건축 양식에서 자주 사용했던 아치형 장식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아치는 집의 공간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 간의 시각적 전환을 만듭니다. 침실 디자인에서도 아치형 요소를 적극 활용했죠.”

이곳의 리모델링에 참여한 스튜디오 가메이루의 건축 디자이너 주앙 가메이루(João Gameiro)는 건축물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미감을 일히는 작업에 착수했다. 볼트(Vault)라 명명한 주거 디자인 프로젝트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시적이고 감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곡선형 아치와 자연 소재를 적절히 조화시켰다.

먼저 주거 공간에 따스함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자 리스본의 자연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월 그레이를 주요 컬러 팔레트로 결정했다. 침실의 마감재로는 회반죽(Lime Plaster)을 적용했고, 비슷한 톤의 페인트를 칠한 수납장을 배치했다.

클라이언트 부부를 위해 직접 디자인한 월 램프는 미니멀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 공간의 완성도를 높인다. 침실과 욕실 사이의 예상치 못한 순간을 창조해 독특한 공간감을 더한 욕실 입구를 수납장의 일부처럼 마감했다.

또한 게스트룸에서는 침대 헤드보드 대신 벽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설계해 안락감을 높이는 등 독창적인 변주를 가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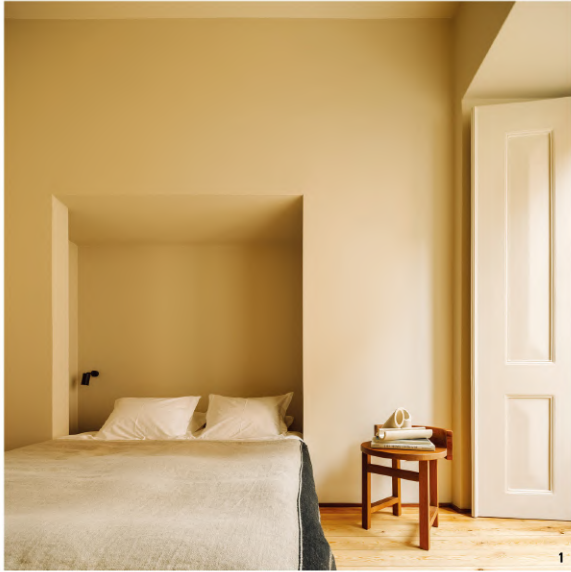


©Francisco Nogueira

- 1 과거의 흔적인 아치형 구조를 최대한 살려낸 침실. 뉴트럴 톤의 색조가 주를 이뤄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 2 수납장과 욕실 문이 마치 하나의 유닛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공간의 진이를 유도했다. 수납장과 욕실 입구를 구분하는 요소로 횡동 손잡이를 활용했다.
- 3 스튜디오 가메이루에서 디자인한 벽 램프는 미니멀한 침대 프레임 및 사이드 테이블과 조화를 이룬다. 불필요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해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맛을 완성했다.



©Francisco Nogueira



1  
©Francisco Nogueira

- 1 게스트룸에는 헤드보드 대신 움푹 파인 틈새 공간을 만들어 동굴 같은 무드를 연출했다.
- 2 침대 앞면에는 독사용 램프나 벽 조명을 배치하고, 큰 창문을 통해 충분한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했다.
- 3 마스터룸 및 게스트룸을 연결하는 복도, 주거 공간의 텍스처와 컬러, 곡선형 천장 디자인 등을 통일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 4 1960년대에 호세 크루즈(José Cruz)가 디자인한 알타미라 알체아와 안드레 코스타(André Costa)의 아트워크, 스튜디오 가메이루가 만든 벽난로 등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거실.
- 5 라임스톤으로 마감한 주방은 천연 석재 조리대, 황동 펜던트, 맞춤형 수납장 등으로 간결하고 우아하게 꾸몄다.



2  
©Francisco Nogueira



4  
©Francisco Nogueira



3  
©Francisco Nogueira



5  
©Francisco Nogueira

**스튜디오 가메이루**  
 2018년 리스본에서 문을 연 디자인 중심 에이전시 스튜디오 가메이루(Studio Gameiro)는 장인 정신, 지속 가능한 디자인, 맞춤형 인테리어 솔루션, 조명 디자인, 가구 디자인 및 건축의 관계를 탐구해왔다. 특히 문, 소재, 따뜻함을 이용해 실험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디자인을 장소의 맥락에 맞게 분석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여긴다.  
[www.studiogameiro.com](http://www.studiogameiro.com)